

“올 여름 전기 수요 폭증... 정전 대비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폭염·집콕 영향 가정용 11% 증가 전망 7월말부터 3주간 전력 피크...한전, 예비율 10.3%로 상향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여름철 가정용 전기 수요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8년에 준하는 폭염이 예고되면서 전력 전문가들은 ‘블랙아웃’(정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9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전국 기준 8730만~9080만kW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 여름 공급능력 역대 최고 수준인 1억191만kW를 확보하고 전력 예비율을 두 자릿수인 10.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계 전력 예비력은 2017년 이래 최대치인 939만kW를 마련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500만kW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실제 최대 전력 수요를 찍은 ‘피크시기’는 2017년 7월24일 오후 8시, 2018년 7월 26일 오후 8시, 2019년 8월13일 오후 8시로 기록됐다.

이 시간 동안 지역 전력수요는 ▲2017년 579만kW(광주 222만kW·전남 357만kW) ▲2018년 574만kW(광주 224만kW·전남 350만kW) ▲2019년 569만kW(광주 219만kW·전남 350만kW)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피크시기 전력수요는 전국(9031만kW)의 6.3% 비중을 차지했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증가로 가정용 전기가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폭염 시나리오’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올 여름 514만과 비슷한 수준인 폭염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시나리오는 연간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5.5% 증가하고 여름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11.1%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올 들어 1~5월 광주·전남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광주·전남 주택용 전기수요는 올 들어 1월 전년보다 1% 증가에 그쳤지만, 2월에는 2.5%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였던 3월에는 무려 9.1% 급증했다. 이후 4월 5.6%, 5월 6% 등 지난해보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매달 늘고 있다.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세는 여름철을 앞둔 에어컨 판매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4~6월 롯데백화점 광주점 에어컨 매출은 1년 전보다 7% 늘었고,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 매출 증가율도 4%를 나타냈다.

가정용 전기 사용은 오프세를 보이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휴업이 잇따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용 전기 수요는 10% 감소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등 제조업체는 올 들어 부품 수급 차질과 수출·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수차례 휴무를 진행했다.

광주·전남 산업용 전기 사용량 감소율은

1월 8.6%, 2월 5.4%이었고 3월 12.1%, 4월 11.5%, 5월 12.1% 등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는 공동으로 ‘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7월6일~9월18일 총 75일 간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무더위로 인한 전력 피크시기는 7월 다섯째 주에서 8월 둘째 주 사이 3주 동안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여름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평년(폭염일수 9.8일, 열대야일수 5.1일)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는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폭염일수 31.4일, 열대야일수 17.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지역 공공 자연휴양림 평균 가동률은 45.0%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가동률은 2016년 42.6%, 2017년 41.4%, 2018년 41.4% 등 평균 41.8%로 나타났다.

공유 자연휴양림을 지난 12개 시도 가운데 전남 평균 가동률은 제주(88.1%), 경기(69%), 대구(62.9%), 인천(62.6%), 충남(54.2%), 대전(50.7%), 강원(45.3%), 경남(42.6%)에 이어 9번째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공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68.8%를 기록한 반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은 13.4%에 그쳤다. 공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별 평균 가동률은 각각 70.1%, 45.0%, 25.4%로 소유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7.90 (+9.02)	↑ 금리(국고채 3년) 0.840 (+0.001)
↑ 코스닥 772.90 (+6.94)	환율(USD) 1195.50 (0.00)

올 한전 빅스포 박람회 온라인 개최

11월 4~6일 화상 수출상담회·전략분야 온라인 전시회

5년 동안 매해 광주에서 열렸던 한국전력 ‘빅스포(BIXPO)’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전은 올해 ‘빅스포 2020’ (빛가람국제컨벤션센터)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빅스포는 11월4~6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한전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전은 행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판촉지원과 지역상생발전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화상 수출상담회와 에너지중소기업 통합기술마켓 구축, 전력분야 온라인 전시회 등이 열릴 계획이다.

기존 운영했던 광주·전남 특산물 판매장터는 온라인으로 개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대면 행사에 대한 국민 호응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유치기금 등 61개 중소기업사의 190여 개 전력기자재의 수출을 돕는 ‘온라인 수출상담관’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7월 부가세 신고, 방문 없이 홈택스로

광주국세청 전자신고 장려...시·군·구 36곳에 상담창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개인·법인사업자 50만 7000명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 1기 확정신고 47만7000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인

대·매매, 과세유형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는 1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내달 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7만7000명에 대해선 예정고지를 아예 취소한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다 홈택스 전자 신고를 활용하달라고 광주국세청은 당부했다.

방문 신고를 분산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광주·전남·북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36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자동차 안을 항기로 채우세요”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매장서 차량 내부 분위기 전환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디프로젝트’ 방향제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 공유 자연 휴양림 가동률 42% 불과

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공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4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전국 공유 자연휴양림 평균 가동률은 45.0%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가동률은 2016년 42.6%, 2017년 41.4%, 2018년 41.4% 등 평균 41.8%로 나타났다.

공유 자연휴양림을 지난 12개 시도 가운데 전남 평균 가동률은 제주(88.1%), 경기(69%), 대구(62.9%), 인천(62.6%), 충남(54.2%), 대전(50.7%), 강원(45.3%), 경남(42.6%)에 이어 9번째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공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68.8%를 기록한 반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은 13.4%에 그쳤다. 공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별 평균 가동률은 각각 70.1%, 45.0%, 25.4%로 소유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할 아이디어 발굴

한전KDN, 14일까지 해커톤 참가자 모집

한전KDN이 한국판 뉴딜(경제부흥) 사업을 이룰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한전KDN은 ‘한전KDN 뉴딜 선도 혁신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혁신과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현실로 구현하는 혁신 기법이다.

대회에는 2~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뉴딜(전기·에너지 분야 디지털전환 혁신기술 활용, 비대면 혁신서비스 기획 등) ▲그린뉴딜(스마트 그린도시 인프라 조성 관련 ICT 솔루션, 신재생에너지 관련 ICT 서비스 등) 2개 분야이다.

심사를 통해 총 6개 내외의 팀이 선발되며, 본선팀은 이달 21일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리는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